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3호 【루계 제23360호】 주체100(2011)년 2월 12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운산공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운산공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리만건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편하기계관리국 국장 리용동지, 운산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방준삼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도, 건설지휘부와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조국이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1950년 10월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며 친히 리전을 잡아주시운 운산공구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11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주체공업을 보다 높은 단계로 도약시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공구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신 영광의 사적이 깃든 공장이다.

운산공구공장의 로동계급과 편하기계관리국, 평안북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공구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인 말씀을 높이 받들고 치렬한 돌격전을 벌려 1년 남짓한 사이에 공장을 새롭게 일떠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총부지면적이 11만㎡에 달하는 공장의 모든 생산 및 문화후생시설들과 구내를 새롭게 조형화, 예술화, 공원화,



현대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제품생산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결과 최첨단을 돌파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기계공업이 요구하는 공구들을 원만히 공급할수 있게 되었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최상급의 CNC공구자동트름선에 김일성상을 수여하고 개발자들에게 높은 국가수훈을 하도록 진히 제의하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추진한 결과 공구의 질과 량을 급격히 높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에 펼쳐진 자랑찬 현상은 김일성민족의 강인한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적재능, 튼튼한 기술경제적잠재력을 발동할 때 그 어떤 최첨단요소도 능히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종합적발전과 지식의 대대적인 축적, 그 적극적인 활용에 의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지식경제시대는 첨단들과의 개척자가 미래의 정복자이며 승리자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립화하여 공장을 문화화의 극치를 이룬 기업소로 전변시키고 지식경제시대 첨단산업의 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는 생산공정의 정보화, 유연화, 다품종화를 실현하였으며 공구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고 공구의 질을 세계적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신 다음 CNC설비공구직장, 2가공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CNC공작기계들과 로봇들로 일체화되어있는 자동화된 생산공정들에서 질 좋은 각종 공구들이 련이어 생산되는 모습을 보시고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건설된 공장은 우리 인민이 그러오면 리상사회의 면

모가 반영된 고도로 문명화된 현대적인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대민족을 표시하시였다.

운산공구공장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도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최첨단틀파전의 영예로운 기술자인 련하기계관리국의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짧은 기간에 공장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공구생산에서 혁명을 일으킨것은 대단한 기적이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빛나는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전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지난날의 모습이라고는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된 운산공구공장은 능력에 있어서나 기술장비에 있어서 당당히 자랑할수 있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운산공구공장의 로동계급이 자력갱

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에 최신과학기술을 더함으로써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런것을 두고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천리마를 타는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운산공구공장에서

기술개조한 기계설비들과 높은 정밀도가 보장된 여러가지 공구들을 보아주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창조적지혜와 협조를 강화하여 많은 과학기술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함으로써 생산에서 놀라운 변혁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두뇌전, 기술전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에 빛내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첨단틀파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그들의 투쟁열의를 거듭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특색있게 건설된 문화회관과 구내식당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문화생활 정형과 후방사업실태를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공장에서는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이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림으로써 후방공구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에서는 문화회관, 운공원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수천그루의 갖가지 나무들을 심어 공장구내를 공원화한것을 비롯하여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확립하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운산공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화려하게 건설된 문화회관과 구내식당을 돌아보시고 도시의 극장이나 식당에 못지 않게 훌륭히 꾸민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담하고 정결한 문화후생시설들이 그쁘히 갖추어지고 각종 나무들이 숲을 이룬 이 공장은 마치 휴양소를 방불케 한다고 하시면서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 공장일군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운산공구공장은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기계공업의 현대화의 위력과 생활력은 공구에 많이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구생산을 적극 따라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는 생산과정들에 대한 CNC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특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한 이 기계를 늦추지 말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간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도달해야 할 전망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운산공구공장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질좋은 여러가지 공구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로동계급이 과학연구부문에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새로운 공구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질좋은 공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에서 강제와 희유급속, 시약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CNC화가 실현된 조건에서 설비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비공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공장의 지도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공장을 관리운영함으로써 생산에서 실리주의원칙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운산공구공장의 로동계급이 앞으로도 우리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비상한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공구혁명에서 더 큰 자랑찬 성과를 이룩

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제화, 현대화, 과학화실현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공장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운산공구공장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평안북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시대의 영웅으로, 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주신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강성대국의 승리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는데 적극 기여할 불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운산공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류홍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회 및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후보중의 딸 주위가족이 꽃바구니를, 에빠도르, 쿠웨이트인사들이 축전과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후보중의 딸 주위가족이 11일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당기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건강장수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월의 명절에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기네에서는 김일성화온실참관주간 개막식이, 브라질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개막식이 1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활짝 핀 태양의 꽃 김일성화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각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레해란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각하

나는 이란이슬람공화국에서 32쪽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날로 풍채 발전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공고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따른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0 (2011)년 2월 9일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여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 당과 같이 창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사소한 로선상차이나 실수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은 없다. 일제기 아버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굳건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신 것으로써 우리 당을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이 위대한 선군시대에 더욱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제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날부터 벌써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라는것을 정식화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당의 지도사상은 당의 투쟁목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밝혀주는 당의 기본리론이다. 당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당의 성격이 규정되며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방향이 규제된다. 당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우리 혁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당대렬과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며 올바른 전략술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서 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탐구하시고 우리 혁명이 걸어온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연구해나가는 과정에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향도한 지도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기성의 지도리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자적인 사상이라는것을 확인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러한 확신과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논증하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역사적지위와 그 체계, 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을 확정하기 위한 확고한 사상리론적기초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여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는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언젠가 아버지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그 불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며 자신께서 우리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온 주체사상을 김일성동지가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주체시대,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이며 백전백승의 보검이다!

이런 철석의 신념이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 건설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마라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본사기자

선군의 위력 떨치는 길에서

참다운 조국애의 발현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금강산을 찾으시던 때의 일이다. 그날 분계연선의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을 굽어보시던 이께서는 문득 한 인민군지휘성원에 대해 리수복영웅이 평시에도 시를 좋아했다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로 말하면 리수복의 옛 상관이였다. 시를 무척 좋아했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리수복영웅의 시는 그 정도로 훌륭한것이라고, 그는 자기의 생을 조국의 운명과 련결시키고 조국의 메일을 위해 바친 삶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시에서만

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준 참된 영웅이라고 하시면서 리수복영웅의 정신세계와 불멸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께서는 리수복영웅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들도 없는 목숨이지만 서슴없이 바치겠다고 한것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것이며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메일의 행복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것은 참다운 조국애의 발현이라고 하시였다.

영웅전사들의 넋을 심어주시며

어느회 회전연에 대한 전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한이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이렇듯 영웅의 희생정신을 잊지 못해 하시며 영웅의 위훈이 새겨진 무명고지지를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이들을 우러르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고여올랐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리수복영웅처럼 전군을 혁명의 수비부활사용위의 총폭탄대로 더욱 튼튼히 꾸려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351고지의 한 초소를 찾으시였다. 뜻밖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부대지휘관들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었다.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위험천만한 최전연초소까지 그들이 찾아온것은 그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호를 지으시고 지척에 바라보이는 적들의 초소와 351고지일대의 산밭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부대지휘관들에게로 눈길을 돌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351고지전투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마지막에 한방울까지 다 바쳐 용감하게 싸웠다고, 강원도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 싸운

영웅전사들의 피가 많이 스며있는 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께서는 동무들은 영웅전사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병토의 0.001mm도 원수들이 엄한 안색을 지으시고 지척에 바라보이는 적들의 초소와 351고지일대의 산밭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부대지휘관들에게로 눈길을 돌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351고지전투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마지막에 한방울까지 다 바쳐 용감하게 싸웠다고, 강원도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 싸운

영웅전사들의 넋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슬금슬금 우리로써 부대지휘관들은 우리 조국을 조급이라도 건드리지자라는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서없이 무지하게 징벌하여 백두산 총대맛을 단단히 보여줄 별적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정순환

하여야 하겠다고 다시금 당부하시였다. 그날 전신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오늘 울림명승지가 로동당시대의 훌륭한 창조물로 꾸러졌것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그런데 한가지 걱정스러운것은 건설을 맡아하는 부대장동무가 목에 병이 생긴것이라고, 그를 빨리 큰 병원에 데려다가 검진도 해보고 해당 치료대책도 세워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한 전사의 건강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몸소 치료대책까지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심장으로 웨치였다. 사랑과 인민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움과 겸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김명훈

몸소 취해주신 치료대책

게 바라보시던 이께서는 도로가 아주 훌륭하다고, 험한 산중에 도로를 건설하였지만 구배와 곡선이 그리 심하지 않고 폭도 그만하단 말씀을 하시면서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전진된 공사계획도 앞으로 결을 옮기시였다. 이때 공사를 맡아하던 부대지휘관이 공사계획도를 짚어가며 도로건설과 명승지개발정형에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보고를 받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웬일인지 자주 그의 얼굴을 쳐다보시였다. 이께서는 어두운 안색을 지으시고 걱정으로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는 현장을 뜰수 없어 누구에게도 내색을 하지 않

았다. 그러다보니 함께 일하는 군인들도, 가정에서도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었던것이다. 허나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은 대번에 그의 병상대를 헤아려보시었던것이다. 그 후 오랜 시간에 걸쳐 명승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인민의 문화휴식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는 내리는 파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떠나시면서 그 선 목소리가 마음에 걸리시여 거듭 걱정하시였다. 야전차에 오르시려다가 다시 그에게로 다가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동무는 언제 봐도 선 소리가 나는데 목간사를 잘

김명훈

김정일령도자의 답력은 조선의 국력이다

지금 세계에는 근 200개의 나라들이 있다.

이 나라들가운데는 령토대국, 인구대국이 있는가 하면 군사대국, 경제대국도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령토가 크고 인구가 많아 하여 강한 나라로 되는것이 아니며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하다고 하여 그 나라가 강대국으로 존엄될지는것도 아니다.

비록 령토가 크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으나 그 어떤 외세의 구속이나 압력에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고수하며 민족의 부흥발전을 위한 목표를 성파적으로 집행해나가는 나라는 세상사람들로부터 강한 나라, 강국으로 인정되고 평가된다.

미국이 함부로 주권국가들의 운명을 통괄하고 제멋대로 칼질하는 오늘날의 불공평한 세계에서 나는 자기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인류의 정의를 대변하여 제철소리를 다하며 자기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나라는 오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이 없다고 본다.

그러면 조선의 이 막강한 국력은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가.

나는 조선을 여러차례 방문하는 과정에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과정에 그것이 다름아닌 김정일령도자의 담력에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지신신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담력으로 하여 조선은 자기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고 정의를 위한 길에서 한치의 양보도 몰랐으며 마음먹은것, 결심한것을 무엇이나 다 실현하는 강위력한 나라, 강국으로 되고있다.

(1)

2009년 조선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발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조미대결은 그 한번 세계를 죽자귀살듯 격동시켰다.

조선에서 국제법적절차를 밟아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발사를 선포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그것이 미사일발사라고 하면서 위성발사를 중지하것을 강박해내었다.

미국, 일본은 조선이 기어코 《미사일》을 발사하면 오격하것이라고 하면서 방대한 무력과 최첨단요격수단들을 조선반도주변에 집결시켰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조선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지금까지 미국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맞서서 단 한번도 물러선적이 없는 조선이 기어이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할것인가 아니면 이번만은 한걸음 물러설것인가.

세계가 우려질을 품고 조선반도에 초점을 맞추고있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대고 엄숙히 경고하였다.

만약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누가 감히 우리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에 대해 《오격》을 강행한다면 오격전직치는 물론 그 본근지까지 송두리채 날려버릴것이다. ... 세계는 조선의 강경한 자세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열렬한 지지성원을 보냈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집집마다 뒤죽박죽을 하였다.

미국은 오격은 없을것이라고 서둘러 자기의 입장을 철회하였고 기고만장해서 날치던 일본은 그 무슨 분례제가 일본에게도 떨어진다는 경우 어쩌겠다는 식으로 애매한 소리를 꿇쳤다.

언어맞고 가만있는것보다는 두덜거리러 다다 하는것이 낫다는 식이었다.

적대세력들이 야에 반쳐 날뛰면서도 어찌저 못하고 전진공공하고있을 때 조선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는 장쾌한 폭음을 울리며 우주를 향해 하늘높이 치달아올랐다.

그 동계에는 《조선》이라는 두글자가 크게 새겨져있었다.

나는 TV를 통해 그 장쾌한 모습을 보면서 뿔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인공지구위성과 그 운반수단, 조종체계 등 모든것을 100%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기술로 만들어 단번에 성공시킨 나라가 도대체 몇이나 되는가.

나라의 크고작은은 논하지 않고서라도 수십년동안 계속되어왔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있는 《코롬》과 그 후손인 와계나월정의 제제그때때문에 그 어떤 첨단기술과 판본물자의 수입도 억척되어있는 나라 조선이 그 모든 장비를 뚝고 인공지구위성의 제작과 운반수단의 개발에서 성공한것은 실로 기적이라 하지 않을수 있는것이다.

남조선이 로씨야와 협력하여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려 하였으나 2차례 걸쳐서 인위적 실패한 사실은 이 기적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주고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것은 그말에 깔려있다고 나는 본다.

국제사회에게 인공지구위성발사에서의 성공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은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압력과 방해책동에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결심과 행동을 배심없이 내미는 그 기상, 그 힘이였다.

다른 나라처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압력과 위협공갈에 굴복하여 인공지구위성이 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말았을지도 모른다.

력사에는 적과의 대결에서 투항의 횃기를 들어 수치를 당한 실례가 허다하다. 세계전쟁사에 가장 짧은 전쟁으로 기록된 잔치바르겐전은 1896년 8월 23일 아침에 시작되어 38분만에 끝나고 말았는데 그것은 영국함대의 어마어마한 포화력앞에서 잔치바르추장이 쉽게 맥을 놓고 굴복하였기때문이었다.

1962년에 카리브해의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핵공갈을 들이대는 미국앞에서 그만 못지 않은 강위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던 이집트군이 당시 국가수반이었던

호루프의 비겁성으로 하여 굴복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크지 않은 나라 조선에 과연 무슨 힘이 있어서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싸워 련전련승하는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국력이다.

힘이 강해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견결히 수호할수 있고 자기 운명도 빛나게 개척하여나갈수 있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의 강권으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국력이 약하면 먹히우고말게 된다.

국력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흔히 군사력과 경제력을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리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하다고 해도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실례도 있다.

이전 쏘련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미국보다 못하여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무너진것이 아니다.

기본은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끄는 령도자의 담력에 있다.

령도자가 드센 담력과 배짱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야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높이 발휘되고 현대적인 군사기술수단과 거대한 경제적압력을 비롯한 막강한 국력이 마련되게 된다.

령도자의 담력이야말로 천만큼에도 비칠수 없는 민족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원천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무기이다.

조선은 바로 그 어떤 피성벽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어 미국과의 대결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있다.

내가 조선방문의 나날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1990년대말의 어느해 2월이였다 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의 녀성격인 씨워 우랄라토바를 집결하시였다. 서상에서 그는 자기 나라의 정치정세와 함께 자기가 이끄는 로씨야의 령도자와 함께 활동과 기타 정당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올리였다.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 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 어떤 대적과 맞대들어도 해볼때만 해보자는 전통한 배짱을 가지고 동요없이 맞받아나가는 사람을 자신께서는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고 한다.

나는 그 누가 우리 나라를 앞둔거나 존엄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용서치 않는다. 그런 놈들과는 사생결단으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것이 나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단해볼수 없다는 구호를 내놓았는데 미국이 우리의 이 신념과 의지에 기가 꺾여서 함부로 우리에게 범접을 못한다. 만약 그래도 넘버는다면 팔자지 결단을 싸우는 것이 나의 배짱이다. 백두산에서 높은 항일유격대가 무력이 강해서 일제의 백만대군과 싸워서 이겼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백두산의 혁명정신만 가지면 그 어떤 대적과 맞서도 두려울것이 없다. ...

바로 이것이 조선혁명의 승리의 력사를 상징하는 백두산의 기상을 그대로 지니신 김정일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인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찍이 김정일령도자의 령도의 예지와 지략, 무비의 담력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나는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장군이 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누가 나에게 장군중의 장군으로서의 김정일령도자의 품도와 기절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나는 무엇보다먼저 그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대하여 이야기할것이다.

령도자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수호의 상징이다.

그 어떤 강적이 덤벼들고 불의의 사태가 조성되어도 태연자약하게 맞받아나가는 담력과 배짱을 지닌 령도자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수호되고 빛날수 있다.

조미해대결에서의 조선의 승리도 김정일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가운데서 한가지만을 여기에 쓰려고 한다.

그것은 김정일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에 놀리워 미국의 최후통첩적인 《메드 라인》(붉은 선)이 편이여 무시된 《메드 라인》(붉은 선)이 편이여 무시된 《메드 라인》. 《메드 라인》은 절대 넘어서는 안된다 하는 한계선의 의미를 담고있다.

조선에서의 2차 핵위기가때였다. 반세기이상의 오랜 세월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경제적압력을 집요하게 강행해오던 미행정부가 끝내 조미기본합의문을 력사의 폐기물로 만든데 대처하여 조선은 2003년 1월 10일 령시 정지시켜놓았던 핵무기전과방지구에서 탈퇴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반박אות는 미국이 플루토늄을제거를 《메드 라인》으로 정해놓고 조선에 이 계선을 넘어서면 더욱 도수는 높은 강경책을 취할것이라고 위협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 《장벽》은 김정일령도자의 드센 담력과 배짱에 의해 물벽은 담벽처럼 허물어지고말았다.

조선은 미국의 그 어떤 강경고압에 물러설 나라가 아니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무성은 2003년 10월 2일 8, 000여개의 폐핵연료봉에 대한 제처리를 끝냈으며 5MW원자로에서 계속 나오는 폐핵연료 봉도 때가 되면 지체없이 제처릴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사는 8, 000여개의 폐핵연료봉제처리는 이미 6월에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업에 참가한

야 흐 야 자 카 리 야 헤 이 롤 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한 표창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총격적인 소식을 전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메드 라인》을 완전히 무시한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어찌는 수가 없었다. 한다면 하고아마는 김정일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앞에서 자기의 황당한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미국은 이번에는 조선이 핵억제력을 가지는것을 두번째 《메드 라인》으로 정하였다. 그것이 2004년말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모진 광풍이 휘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 완강한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자그마한 풍요나 주저도 없이 단호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신으로써 조선은 다음해인 2005년에 핵보유를 당당히 선언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또다시 핵전과문제를 들고나오면서 기어이 조선을 고립압살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말한다면 조선은 이미 2005년 2월 10일 위무성 성명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미국의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에 대처하여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어 보유하였다는것, 조선은 자기의 핵무기를 다른 나라들에 이전하지 않으며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것, 조선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억제력적으로 남아있을것이라는것 등 공명정대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길에서 단 한치의 양보나 추호의 중요도 몰랐다.

조선인민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수호하기 위해 자기의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민족은 아마 이 행세를 드물것이라는것을 나는 조선방문의 나날에 깊이 느낀수 있었다.

조선이 전쟁억제력으로서의 핵무기를 가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속에서 자기의 최고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행위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떻게 해서나 조선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까지 조작해냈으며 남조선까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수상》에 끌어들이면서 어느 책등을 다하였으나 거기에는 놀랄 조선이 아니였다.

우리는 그대 예절드루체사상연구위원회의 명의로 유엔의 제재결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성명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촉박을 진행하는 불공평한 결의를 채택한데 대하여 준엄히 규탄하고 평화의 수호자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위대한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세계자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선군적인 나라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주시는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다.

조선은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킨 김정일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은 웅장한 찬양을 받아야 할 가장 정당한 이유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대국들만이 핵을 가질수 있고 작은 나라들은 핵을 가질수 없으며 미국이 승인하는 나라는 핵을 가질수 있고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핵을 가질수 없다는 《롤리》는 그 어떤것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핵개발능력을 소유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것을 어느 정도 알고있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속에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선이 자기의 힘과 기술로 세계핵구락부의 당당한 선군국으로까지 되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방해와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면서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가질것이아말로 기적이라외박에 달리는 발전없는 위대한 성과이다.

고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제왕 포세이돈(제우스의 동생)에게는 매우 신비롭고도 무서운 세가지 창이 있었다.

그 창을 한번 휘두르지만 하면 산더미 같은 바다물결이 솟아오르면서 사나운 비바람이 불어치지만 물속에 드러우기만 하면 평탄하던 파도는 순식간에 고요해진다 고 한다.

그처럼 심비르를 창에도 비할수 없는 것이 김정일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 어느 위인도 지닌적이 없는 강철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을 편이여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내시고 세계민방에 빛내어주시였다.

20세기초 미국대통령 시어도 러즈벨트는 조선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쳐들지 못하는 민족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은 한세기전의 조선이 아니다.

조선의 력사적위기가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김정일령도자를 모신 조선은 민족존엄수호의 최강의 지위에 올라섰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닌 세상사람들 모두가 인정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의 담력과 배짱, 바로 이것이 조선의 국력, 민족존엄수호의 원천이다.

(2)

우리 에리트르사람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아마도 1943년 11월말에 루즈벨트와 처칠, 장개석 이 까리브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미, 영, 중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그 선언의 중요내용의 하나가 《3개국은 《적당할 시기》에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실현시켜줄것이다.》

그 선언을 들으며 우리 에리트르인들은 식민지해방국인 조선인민에 대한 동정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년후인 1973년에 우리 에리트르사람들은 조선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조선은 식민지해방국이나 《약소국》, 《은둔국》이 아니였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조선인민은 자기 민족의 존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겼뿐 아니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사자처럼 용맹하게 싸우는 사람이었다.

이미 세상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조선의 공군부대는 헬나와 수리야뿐 아니라 우리 에리트르에서도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이스라엘에 의해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나라에 온 조선의 비행사들은 첫 공중전투에서만도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며 날치던 《F-4》를 4대나 격추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조선의 비행사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쓰는 전투방법이 아니라 자기식의 새로운 주제전법으로 적의 비행장과 미사일기지, 연유장 등을 비롯한 중요군사적점들을 편이여 타격하면서 전과를 크게 확대하였다.

이에 크게 고무된 우리 에리트르군은 전진선에 걸쳐 공격을 개시하여 이스라엘정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고 제4차 중동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가져왔으며 결국 패망했던 시나이반도를 비롯한 많은 령토를 다시 찾게 되었다.

하기에 우리 에리트르의 제4차 중동전쟁사료집에는 조선인민군이 이 전쟁에 참가하여 싸운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려사의 각오를 가지고 희생적으로 전투를 진행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조선인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의하여 우리 에리트르에 훌륭하게 건립된 10월전쟁기념관과 박물관에도 이에 대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전시되어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이 기념관과 박물관을 가끔 찾곤 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 있다.

그것은 조선이 우리 에리트르와 피그나 멀리 떨어져있지만 우리의 위업을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도와준데 대한 고마운 생각이며 조선의 비행사들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에서 용맹렬치도록 이룩한 조선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정이다.

오늘도 강권과 전횡이 범람하는 불공평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자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일장에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이 서있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정의를 유린 말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오늘날에 와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그 대 표적표현이 미국의 2중기준 정책이다.

지난해 5월 이스라엘은 국제법의 요구와 인도주의원칙을 관측하게 유린하고 공해상에서 백수에 팔때스나로 가던 국제인도주의원조선반도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만행은 세계를 격분시켰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비호두둔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사건을 취급하는것마저 막아내었다.

반면에 지난해 3월에 세계의 초점을 모은 조선서해해상에서의 남조선해군함선 《천안》호침몰사건과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하여서는 일로당도않게 조선에 《죄》를 넘겨주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도록 획책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기때문에 있는 죄도 덮어주고 조선은 반미국가이기때문에 없는 죄도 만들어 붙이는것이야말로 2중기준정책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그런 실례를 들자면 얼마든지 있다. 미국은 《테러박멸》의 구호를 들고 백주에 주권국가들을 침략하는것도 서슴치 않고 《반테러》에 대하여 누구보다 떠들어대면서도 테러분자들을 적극 비호두둔하고있다.

미국이 테러분자들의 정치적편袒, 안식처, 서식지이라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우리 중동의 한 문필가는 《미국은 오늘의 프로크루스테스의 미국은 자기기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재해보고 그와 어긋날 때에는 가져들이는 것일뿐이다.》

미국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사정 이 없다.》라고 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강권과 전횡만을 일삼는 미국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며 실감한 조이다.

고대 그리스신화에 의하면 지나가는 길손들을 악착한 방법으로 해치는 악한이 있었는데 그의 침대는 프로크루스테스 즉 잡아늘리는 놈, 쇠침대도적이었다.

이자는 자기 집안을 키가 작은 사람이 지나가면 길가에 끌고 가 몸을 침대에 이만큼 늘리어 죽이고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침대에 끌고 가 침대밖으로 나온 발을 잘라 죽였다.

이 신화적인 이야기로부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란 말은 자기 의사를 남에게 강권으로 내리찍어내는 행위, 전횡 맞지 않는 기준과 요구를 무적다짐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횡포한 행위를 비유한 말로 통용되고있다.

인류는 21세기가 지배와 억속에 없고 정의와 평화가 보장되는 행복한 세기로 될것을 바라고있지만 새 세기 벽두부터 이런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사태들이 편이여 일어났다.

2002년 부쉬정권은 국가안전보장정책이라하는것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페넌에 다른 뜻을 표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서 무력을 동원하여 배제할 권리가

저들에게 있다고 공공연히 선언하여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패권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겠다는 강도의 본리이다.

바로 미국의 이런 오만하고 날강도적인 행위로 하여 세계에는 정의와 진보, 인류의 향상이 엄중히 유린당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전락은 만사람의 큰 우려를 자아냈다.

사실 미국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나라가 거나 없다. 하여 팽전종식후 미국이 과적으로 정한 나라들은 불피고 죽고만다는것, 미국에 었서나가는것은 자멸을 초배하는 행동이라는것이 오늘의 세계정치에서 거의 공리처럼 인정되어오고있다.

이런 포악한 미국이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파감하게 전진해나가는 조선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수 있었는가.

미국은 강도적인 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조선이 맞다는 상대는 사실 어느 누가 말한것처럼 《종이범》이 아니였다.

미국은 세계 《최강》을 떠드는 흉악한 적수였다.

일찍이 무솔리니는 《약육강식은 인류생존의 근본법칙》이라고 하면서 침략과리를 정당화하였는데 이것은 무자비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자는것이였다.

영국수상이였던 처칠도 《세계의 모든 력사는 강대한 민족은 언제나 정의를 향하고 정의를 향하는 민족은 언제나 강대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라고 역설하였는데 이 말은 약소국가들을 힘으로 짓몽개버리려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굳이건 공식처럼 된 미국.

하기에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도 처칠의 이 말을 자주 써먹으면서 저들의 강권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원히 미행정부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전횡과 침략책동에 의하여 이젠 유고슬라비아가 흑심한 제난을 당하고 갈기갈기 찢겨우게 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당국에속의 수난을 당하고있다.

서방의 한 정치학자는 자기가 집필한 책에 오늘의 세계에 사람들은 두개의 계도를 보고있다고, 하나는 패권을 향하여 팽기중인 권리의 틀거리안에서 제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있고 다른 하나는 《세계를 변화시킬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로 지배적인 제제를 반대하고있다고, 어느 계도가 승리할것인가고 했다.

그가 쓴 두개의 계도란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과 그대 단호히 맞서 싸우는 자주적인 나라를 특히 조선을 넘겨두었다고.

세계정치정세에 대한 정확한 투시라고 본다.

저들의 패권을 위해 온갖 전횡을 일삼으면서 정의와 진리를 마구 짓밟는 미국의 전락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반대배격하여나섰다.

그 앞장에는 언제 한번 정의를 되면하거나 불의앞에서 자그마한 주저와 동요도 몰랐던 조선인민이 서있었다.

정의를 유린말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추호의 용서도 모르는 초강경의 담력, 세계의 진보와 정의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강인담대한 배짱을 지니신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미국과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는 물론 외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대결에서도 련전련승하여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강권과 부정의가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정의와 인류의 향상을 굳건히 수호한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본리를 어찌하여 본박하고 《정의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는 민족은 반드시 강대해지지만이 아니라 한 민족은 언제나 정의롭다》는 새 력사를 창조하고 그 모범을 헌신로 펼쳐보였다.

정의를 말로써 지켜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강력한 무장력에 의해서 지켜지게 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를 빛나게 실현하시어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핵억제력을 포함한 가장 위력한 군력을 마련해두으셨다.

조선은 당당한 핵보유국이며 세계의 그 어느곳에 있는 적도 마음먹는데로 타격할수 있는 강한 나라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가할수 없는 위력한 능력을 가지고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드신 김정일령도자의 담력앞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일제멸 매는것을 볼 때마다 우리 중동사람들은 참으로 가슴후련하고 뚝뚝한감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조선은 당당한 핵보유국이며 세계의 그 어느곳에 있는 적도 마음먹는데로 타격할수 있는 강한 나라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가할수 없는 위력한 능력을 가지고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드신 김정일령도자의 담력앞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일제멸 매는것을 볼 때마다 우리 중동사람들은 참으로 가슴후련하고 뚝뚝한감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력사에에는 정의의 대변자, 옹호자, 수호자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김정일령도자처럼 불의에 대한 비타협성과 투철한 정의감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시고 강위력한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침략행위를 단호히 짓부셔 정의와 평화를 건설치 옹호해나가는 그런 위인이 그 언제, 그 어느 시대에 있었는가.

위대한 정의의 수 호 자 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끄시는 조선은 사회주의의 보루로, 자주와 정의의 성서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신망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김정일령도자의 담력은 그 어떤 강권행위로 단호히 짓부셔버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담력이라는것을 나는 다시한번 확인한다.

(3)

내가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크게 감동한것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는 조선인민의 강한 투쟁정신이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천만만 읊은 말이다.

조선은 자기가 결심하여 못해낸 일이 단 한번도 없다.

조선의 예제가 그것을 말해주며 오늘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이 구호는 령도자를 닮은 조선인민의 기상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조선혁명의 큰 행에서 가장 시련많은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민족의 후손민단의 변명을 위해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높이 드시었는데 이것은 그의 굳센 의지와 함께 강철의 담력의 최고발현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 당시 조선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선군은 평화수호, 민족번영의 위대한 기치

발발이 드러난 대화부정자세

조선반도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위업은 난관을 박차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책동이 고조되고있는 위협한 정세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수호되고 조국통일운동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는것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이며 애국적인 선군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외호전세력의 약탈한 도전을 정의의 총대로 쳐갈기는 선군의 위력을 목격하면서 지금 해외의 온 겨레는 선군정치야말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는 애국적의 정치라는 진리를 더욱 사무치게 깨닫고있다.

위대한 평토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혁명론서, 선군정치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로선이며 정치방식입니다.》

평화는 민족의 존재와 발전의 필수적 전제이다. 민족분열의 긴긴 세월 항시적인 전쟁위협에 시달리고있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평화수호는 사활적이며 조국통일의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수호의 믿음직한 방패로 위용될수있고 선군정치하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세계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침략적인 의사가 있는 한 민족의 자주적권리는 말이나 호소로써는 결코 옹호될수 없다. 우리 민족의 통일병영도 리온이나 청원이 아니라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우리의 선군정치를 떠나서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겨레의 안녕과 행복도 생각할수 없다.

어떤건 일제에게 망국조약을 강요당하고 나중에는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던것은 자주권을 수호할 강력한 총대가 없었기때문이다.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지난 60여년간 조선반도에는 언제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핵전쟁의 참화를 들을지 모를 긴박한 정세가 항시적으로 조성되어왔다. 하지만 이룩된 협박한 정세하에서도 전쟁은 억제되어왔으며 도발자들은 자들의 침략적기도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패의 선군정치가 이 땅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주었기때문이다.

선군정치야말로 무적불승의 총대로 외세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물리치며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와 통일통일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민족수호, 평화옹호의 보검이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특성병영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희망의 기치이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통일된 나라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려는것이다. 그것은 민족의 세기적숙망이며 지상의 패자이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조국애로 충만되고 민족수호의 믿음직한 방패로 위용될수있고 선군정치하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세계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침략적인 의사가 있는 한 민족의 자주적권리는 말이나 호소로써는 결코 옹호될수 없다. 우리 민족의 통일병영도 리온이나 청원이 아니라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우리의 선군정치를 떠나서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겨레의 안녕과 행복도 생각할수 없다.

매개 민족의 존엄은 그 민족자체의 국력으로 달려있고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담보하는 국력중의 제일국력은 군력이다. 비록 경제와 문화가 발전된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군력이 약하면 외세의 침략과 도전을 이겨낼수 없다. 망국은 순간이며 복국은 천년이라는 말도 있듯이 잃기는 쉬우도 다시 찾기는 힘든것이 자국이다. 매개 민족의 자주권은 그 어떤 대국의 《보호》나 국제사회의 동정기 아니라 우리 민족자체의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지켜질수 있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장래운명과 무궁번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전략적선택이다. 우리 민족의 장래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통일위업의 실현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외세가 힘으로 전조선반도를 지배하려 하고 민족분열의 비극이 지속되는 한 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지극히 명백하다.

선군정치는 지난 기간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기치로서 불패의 생명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온 민족을 통일의 희망으로 들끓게 하고 세계를 긴장시킨 역사적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활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위대한 선군정치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선군의 위력과 그에 의해 백방으로 강화된 조국통일의 주제적역량이 있어 6.15 통일시대는 활기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부강번영할 통일조국의 미래가 다가오고있다. 민족사에 빛나는 자

주통일시대를 놓고 그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는 선군정치야말로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의 상징이다.

지금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해외의 온 민족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선군정치가 열어준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을 따라 힘차게 투쟁해나가고 있다. 선군정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안겨줌으로써 그들모두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우고있다. 각계각층 동포들은 필승불패의 선군정치에서 무한한 민족적자부심을 느끼고있으며 온 겨레가 힘을 합치면 능히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창조할수 있다는 자각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온 겨레는 민족을 살리고 지키며 빛내이는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옹호해야 한다.

선군의 덕을 입는 조선사람이라면 마땅히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주는 선군정치에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짓부서버려야 하며 선군공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민족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며 애국적의 정치인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거족적투쟁에 자기를 따라세우는 사람만이 시대와 역사를 앞선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지만 불굴의 선군정치가 실시되는 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민족의 믿음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선군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허영민

보도진과 같이 북남교류경제개발을 위한 예비회담이 결렬되었다. 이번 회담은 극도로 악화된 북남관계에 개선의 문을 여느냐 마느냐 하는것을 가늠해 하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다. 하지만 회담은 아무런 결실도 내지 못했으며 결국 잡힐듯 하던 기회는 사라지고말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우리측은 본회담의 의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성있고 야망있는 자세를 보였었다. 남측이 저들의 립장을 고집하였지만 어떻게 하나 본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대담하게 절충안을 거듭 내놓았다. 또한 대표단구성문제를 놓고도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려는 일임으로써 출발반호적이였다.

그러나 남측은 한사코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과 관련한 의제만을 정하자고 하는 등 고집불통이었다. 대표단구성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본회담에 누가 나오면 하고 누가 안나오면 하지 않겠다는 극히 무례하고 오만한 자세를 취하였다. 본회담개최시기도 부디 우리를 반대하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 2월말경으로 하자고 우기었다. 보다싶이 남측은 북남교류경제개발을 열려는 의사가 아니었으며 회담의 성사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북남대화를 어떻게 하나 파탄시키려는 고약한 심보를 드러내며 유지하기 짝이 없게 처신하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관계개선을 반대하면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남조선당국의 태도가 뚜렷이 립증되었다.

북남회담을 북측대표단이 공보를 통하여 군부대변인에서 드러난 남조선당국의 불순한 속내를 가늠하며 회담결렬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한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는 지금껏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풀고 했다. 북남사이에서 진행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심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회담도 그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어땠는가. 우리의 거듭되는 대화제에도 불구하고 대결적분열을 계속 내밀는가 하면 우리를 국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외세와의 공모놀음에 집요하게 매달려 남북전쟁불장난소동을 끊임없이 벌이며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것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애초부터 우리와 대화를 할 참도리가 아니었다. 이번 회담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들은 회담남자를 질질 끌고 마지못해 대화마당에 끌려나오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하나 똑똑히 준비하지 않았다. 남측이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한 그 무는 《책임적인 조치》마위의 문제들만을 의제로 정하자고 고집한것을 보아도 이번 회담을 파란시키려는 그들의 고약한 의도를 잘 알수 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오로지 이번 회담을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정성 넘겨주기 위한 공간으로 악용하려 했을뿐이다.

그들은 이번 회담에서 그 무는 《국민정서》니 뭐니 하며 저들의 부당한 요구를 합리화하려 했었는데 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요구하는것은 북남사이의 대결이 아니라 대화이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다. 남조선당국은 그렇게 《국민정서》를 잘 알아서 인민들이 그들로 반대하는 4대강정비사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소고기시장을 미국에 개방했는가. 저들에게 유리할 때에는 《국민정서》를 떠들고 불리할 때에는 제멋대로 놀아대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자들이었다.

남측이 이번에 회담장에 나온것이 우리와 대화를 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는것이 아니라 저들의 대결적정세를 가리우고 내외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서였다.그것은 더러운 할미 어지거였다. 그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한 회담이 어떻게 제대로 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지금과 같은 대화부정자세, 대결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될수 없고 조선반도정세가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것이라는것을 사래는 보여주고있다.

최철순

《주체사상과 민족문제》

지역기구 인터넷에 글 게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립국체협회가 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주체사상과 민족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였다.

글은 주체사상은 오늘 세계 정치문제의 초점으로, 중대한 문명의대산으로 되고있는 민족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체사상은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

이라고 천명하시였다. 민족의 자주성은 온갖 형태의 예속과 불평등을 없애고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그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 때만이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고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운명을 개

적들의 침략책동에 대해 경고

이란군 총사령관이 5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적들의 침략책동에 대해 단호히 경고하였다.

그는 이란군대는 적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에 대해서도 선제타격을 가하여 짓부실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이란군 총사령관이 5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적들의 침략책동에 대해 단호히 경고하였다.

그는 이란군대는 적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에 대해서도 선제타격을 가하여 짓부실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최근 새로 수정된 군대당위회의 사업조례를 발표하였다. 군대당위회의를 유급화한 이 조례는 군대의 각급 당위위원회가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기본근거로 된다. 조례는 군대의 각급 당위회의사업을 강화하고 그 창조력과 단결력, 전투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부룬디에서 부룬디정부가 최근 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실현에 착수하였다. 계획에 따라 앞으로 9년동안 나라의 7개 주에서 농업부문을 주체세워 일과목우유농업을 현저히 늘이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게 된다. 정부에서 여기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있다.

이란에서 이란이 우주과학기술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7월 테헤란에서 이슬람과학총회 32집단이 모여 우주과학기술분야의 성과물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장에는 가까운 시기에 우주에 진입시킬 4개의 새로운 국산제인공지구위성들과 현대적인 우주로켓 등

꾸릴렬도는 로씨야련방의 불가분리적인 부분이다

이 나라 대통령이 언명

로씨야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9일 꾸릴렬도는 로씨야련방의 불가분리적인 부분이며 로씨야의 전략적지역으로 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꾸릴렬도에 대한 주권

미국신문의 보도를 배격

파키스탄의무성 대변인이 최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신문의 보도를 배격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파키스탄의 핵계획이 미국에 도전으로 된다고 주장한것과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이 전시되어있었다. 이 나라대통령이 정부관리들과 함께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캄보디아에서 지난해 대외무역액이 그 전해에 비해 26%증대되었다. 7월 이 나라 상공업이 이에 대해 밝혔다.

남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에서 고속철도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에 따라 요한네스버그로

이스라엘군의 탄압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다.

《만민복지》와 《문명》에 대해 요란스레 떠드는 미국에서 새해벽두부터 총기류범죄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 폭력범죄가 사회의 분위기를 어수선했고있다.

이비 보도면과 같이 지난 1월 8일 아리조나주에서 류혈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미국사회 전반을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었다.

이날 주의 한 백화점앞에서 집회가 진행될 때 22살 난 청년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여 9살 난 소녀와 17살 난 남자 6명을 죽이고 4명 부상을 입혔다.

경찰이 청년을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파견에 그가 최근 인터넷에 미국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병행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실은 사실이 밝혀졌다 한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책을 규탄

팔레스타인민족당국 공보성이 7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점토한 유대인정착촌확장정책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날 이스라엘당국이 또다시 동부무르스에 많은 유대인 살림집을 건설할때 대한 계획을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성명

기업체 파산

일본에서 심각한 경제침체로 기업체들이 계속 무리로 파산되고있다.

8일 도쿄 쇼요연구소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1월에 전

현미은 총정사건, 어수선했 미국

이런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집권지는 수사정형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대책을 세운다. 어찌나 하면서 번주함을 피웠는지 그것은 이미 소알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이보다 앞서 5일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서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들에게 교에서 3명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미국사회에서 총기류범죄가 고질병으로 되고있는것은 썩어빠진 사회제도에서 그 근원을 두고있다. 《자유》의 간판밑에 총기류소유가 법적으로 허용되다보니 개인이 가지고있는 총기류는 2억정씩 넘는다. 이것은 그대로 총기류범죄증대에 이르고있다.

이 나라의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해마다 1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총에 맞고 그중 3만여명이 목숨을 잃고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총탄에 맞아죽을 걱정에 항상 불안속에 지내야만 하는 사회가 바로 미국사회이다.

년초부터 그칠새없이 발생하는 총기류범죄사건은 온갖 범죄의 한무장인 미국사회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가을피해극복을 위한 노력

오늘 중국에서는 가을피해의 후과를 가시고 식량생산에 지속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최근 중국의 화북지역과 황하, 회하지역에서 비가 적게 내린 결과 하남성과 산둥성, 산시성, 허북성, 강소성, 안휘성 등 여러 지역에서 가을피해가 커지고있다.

중국정부의 주요농업생산지인 산둥성에서는 60만명에 달하는 심한 가뭄로 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농산물, 축산물생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미국은 세계 첫 10년대 초엽에 당장 《승리》를 거둔것처럼 콘소리티며 아프리카나 아프리카에 방대한 무력을 투입하여 강점하였지만 장기전의 진창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많은 미군병사들이 이 나라에서 반미항쟁세력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직면하여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그 값을 톡톡히 치르고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항쟁세력들은 도처에서 미군을 소탕하고있다. 이로 하여 미군속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미군병사들은 땀과 피를 흘리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기여들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자랑과 뒤차의 운행시간간격은 100초로 정확히 보장되고있다.

본사기자

자 연 재 해

미국이 중서부와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많은 눈이 내리피해가 있다.

특히로 학교와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고 비행기운행이 취소되어 려객들이 오도다 못하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

스리랑카의 북부중앙주와 동부주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리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로 5일현재 이 주들에서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였다고 5명이 부상 입었다.

또한 약 1000명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100만명이 한지에서 내몰렸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오스트랄리아 퍼시스의 동남부지역에서 최근 산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산불로 6일현재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800ha의 산림과 40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었으며 수백명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였다.

또한 주민지역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세계 식

운행거리가 가장 긴 무인 조종 지 하철도

세계에서 운행거리가 가장 긴 무인조종지하철도는 아랍추장국련방의 두바이에 있다 한다.

거액의 자금을 들여 건설한 이 지하철도는 지상과 지하의 운행방식이 모두 운전자가 없이 컴퓨터로 조종되고있다. 무인감시제와 함께 영상 및 음성체계를 갖

으로 된 두 로선이 개통되었다. 5.2km 구간은 붉은색로선이고 2.3km 구간은 푸른색로선이다. 제동과 가속에서 로선의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는 두바이무인조종지하철도는 운행시 에너지를 소모가 적으면서도 차량관행을 높이고 있다.

앞차와 뒤차의 운행시간간격은 100초로 정확히 보장되고있다.

본사기자

파렴치한 침략정책의 산물

독되었거나 과도하게 의존하고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오죽하면 조사관들에게 미군 환자들의 약물중독이나 그에 대한 의존을 막기 위해서는 종로제처방의에 약물중독을 줄일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고 시사연하였다.

외신들은 정신, 육체적으로 문제거리가 있는 미군병사들이 경우 오래동안 해외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기간에 썩인 트레스와 죽음에 대한 공포심, 무서운 전쟁현상이 약물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군관들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준다 하면서 중독성이 있는 진통제를 주고있다

침략정책의 산물

미국방성통계에 의하면 마취 등 미군에 배정된 진통제 처방전수가 2009년에는 370만장에 달하였다. 이것은 2001년에 비해 85%나 증가한것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통계가 나왔다. 또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매년 약물량용량으로 진단을 받은 미군수가 50%로 증가해 4만명에 달하였다. 약물량용으로 입원한 미군의 수도 2003년에는 월평균 100명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월평균 250명에 달하였다.

머우기 문제는 미군장성들속에서 약물중독자가 나타나고있는것이다. 미군특수부대를 총괄지휘하는 특수작전